

남원형 의료 · 돌봄 통합지원 고도화

시, 읍면동 스마트복지 안전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사업 공모 선정

남원시는 지난 3월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읍면동 스마트복지 안전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 스마트돌봄 기능과 대상 지역의 확대를 통해 남원형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이 더욱 고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2023년 동충동, 향교동 지역을 대상으로 시작한 이번 공모사업은 △복지 안전협의체 구성·운영 및 역량 강화 교육 △스마트 플러그 지원사업 △남원 복지안전 119 앱 기능 개발이 주요 내용으로 2024년도에 노안동, 금동지역이 추가되었고, 올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죽향동, 왕정동, 도봉동 지역까지 확대해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돌봄 취약계층 안전망 지

역이 확장될 예정이다.

복지 안전협의체는 마을 이·통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율방범대, 주민자치회 위원 등으로 구성되며 △위험 지역 예찰활동 △안전 위험 지역 발굴 및 개선 방안 논의 △안전 취약 가구 및 복지 위기가구 발굴 △스마트 플러그 지원 및 남원 복지안전 119앱 보급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스마트 플러그 지원 사업은 안전 취약 가구(독거노인, 돌봄 취약계층)를 대상으로 가정 내 TV 등 가전제품에 플러그를 부착하는 사업으로 전력 사용량과 조도 변화로 위기가구를 감지한다.

남원 복지안전 119앱은 위기 상황과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휴대폰을 사용하여 신속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위기 대응 앱으로 △긴급 상황 시 119 자동전화 연결 및 비상 연락망 번호로 문자 발송 △생계, 의료, 주거 등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 요청 및 복지상담 연계 △안전, 기타 위험 발견 시 신고 기능 △공공기관, 병원, 약국 등 지도 정보 안내 △재난 상황 발생 시 대처요령 영상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남원형 통합돌봄 체계가 한층 촘촘해지고, 돌봄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다양한 영역의 돌봄 지원 확충으로 내실 있는 서비스 제공과 통합돌봄 대상자의 위기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해 돌봄 안전망을 견고히 다져나갈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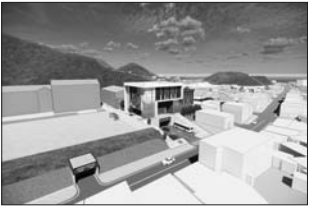
교육부 100억원 · 도 교육청 60억원 · 임실군 50억원 등 220억원 투입

임실군이 지난해 교육부 주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공모사업에 이어, 올해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은 교육부 주관으로 학생 교육과 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에 활용될 수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해부터 임실군과 임실교육지원청은 뜻을 모아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대응을 시작해, 지난달 4일 업무협약에 이어 이번 달 최종 공모 선정까지, 지자체와 교육청이 상생 발전하는 대표적인 모범사례를 보여줬다.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임실동중학교 부지에 교육부에서 지원받는 110억원, 도 교육청 60억원, 임실군 50억원 등 총사업비 220억원 규모의 학교복합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다.



학교복합시설 조감도

시설에는 △자기주도 학습공간 △미래교육 체험공간 △학생 자치공간 △다목적 체육시설과 더불어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115면의 △지하주차장도 함께 조성할 예정이다.

청소년 복합시설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AI·AR&VR 체험, 코딩 SW실 등 미래 교육 체험 공간을 구축하여 학생들의 창의력과 미래 역량을

강화하고, 자기 주도 학습공간을 마련하여 학습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학생 자치활동을 위한 K-밴드실, K-댄스실, 학생의회실, 동아리실 등을 마련하여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율성과 공동체 의식을 기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임실 구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학교 운동장의 단차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100면 이상 확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2026년부터 기획 및 설계 용역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2029년에 시설 개관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심 민 군수는 "임실군과 임실교육지원청, 학교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이뤄낸 쾌거"라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이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임실 교육 발전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전홍영 기자

순창군, 양지천 일대 봄꽃 만개... 새 명소 부상

순창군 양지천 일대가 봄꽃으로 뒤덮이며 지역의 핫플레이스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민선 8기 5대 역점사업 중 하나인 '경천·양지천 수변 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양지천 산책로 약 2km구간에 꽃잔디와 수선화, 튜립 약 70만 본이 활짝 피어나, 봄나들이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총 17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경천·양지천 수변 종합개발사업은 자연 친화적인 명품하천 조성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양지천을 정비하고 올 하반기부터는 경천 산책로변 꽃길 조성, 경천·양지천 합류부 공원 조성, 음악분수대 설치 등 다양한 경관시설을 추

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현재 양지천에는 자줏빛 꽃잔디와 노란 수선화가 활짝 피어 봄의 절정을 알리고 있다. 특히 수선화는 황금빛 물결을 이루며 산책객들에게 색다른 감동을 선사하고 있으며, 꽃잔디는 화려한 카펫처럼 펼쳐져 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순창의 봄 경치를 한껏 만끽할 수 있는 '순창 참두루 여행' 축제가 오는 18~19일 양지천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광주 센트럴병원 '맞손'

'농촌사랑 동행순창' 협약 체결

순창군은 지난 11일 광주 센트럴병원과 도농교류 활성화 및 지역사회 협력 강화를 위한 '농촌사랑 동행순창'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최영일 순창군수, 고길석 광주 센트럴병원 대표원장, 최승식 남부대학교 교수 등 양측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군수실에서 진행됐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임직원 연수 및 워크숍, 순창투어 등 도농교류 활성화 협력 △새미나실·숙박시설 등 순창군 기반시설 활용 지원 △양기관 간 상생협력을 위한 사업 발굴 및 지속적인 교류 추진 등이 포함됐다.

광주광역시 관산구에 위치한 광주 센트럴병원은 2015년에 개원하여 현재 460여 명의 직원과 30명의 전문의가 근무하는 종합병원이다.

고길석 원장은 "이번 협약이 병원과



순창 간 다양한 상생 협력의 출발점이 되어 기쁘다"며 "순창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광주 센트럴병원과의 이번 협약이 도농 간 연대와 교류의 모범사례가 되길 바란다"며 "양 기관이 함께 지역의 활력을 이끌 어갈 다양한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보건의소,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 홍보

남원시보건의소는 따뜻한 봄철, 따뜻해진 기온만큼 진드기 매개 감염병이 빈발하는 시기를 맞아 예방수칙 홍보에 나섰다.

최근 3개년 환자 다발성 상위 3개 지역 순창(대강면, 사매면, 보절면)에 집중 교육을 시행 중이며, 지난 3월에는 새롭게 체조강사로 구성된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 홍보단 발대식을 갖고 경로당 88개소에서 집중적인 예방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또한, 감염병관리지원단과 협업체 3월 보건의소 직원 70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를 마쳤으며, 4월 7일 대한노인회 노인봉사자 80명 대상 교육과 홍보



를 실시하고, 남원시 농정과 농촌인력팀과 협업하여 외국인근로자 200명 대상으로 꼼꼼한 맞춤형 교육을 시행하였으며, 산책로 해충 기피제 분사기를 6대 운영하는 등 진드기로부터 안전한 환경에도 힘쓰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외국인 유학생 초청 '남원문화체험 교류행사' 가져

남원시는 지난 11일, 전북대학교 한국어학당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270여 명을 초청해 '남원문화체험 교류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남원의 대표 문화와 관광자원을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남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동시에, 전북대학교와 남원시 간의 교류 협력 관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가오는 춘향제 기간에는 부산대학교 외국인 유학생들이 남원을 방문할 예정이며, 몽골어번역학교 청소년들도 춘향제에 맞춰 남원을 방문해 전통공연 및 길놀이 행사에 직접 참여해 축제에 활력을 더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이날 전북대 유학생들은 운봉읍 소재 '희망씨앗농장'에서 산양 유제품 만들기과 교감 체험에 참여하고, 광한루원과 김병중 미술관, 구)서도역 등 남원의 주요 문화 명소를 둘러보며 도시가 품은 예술과 자연, 문화적 감성의 오감 체험에 나섰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 통

남원시, 생생마을만들기 사업 적극 추진

남원시는 2025년 '생생마을만들기사업'으로 기초 단계 5개 마을, 플러스 단계에 4개 마을을 선정 적극 추진한다.

이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삼라농정 사업의 일환으로, 행정이 주도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형성하여 직접 추진하거나, 중간지원조직과 협업하여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여 농촌에 활력을 주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생생마을만들기 기초 단계는 △마을 경관 사업(대강 사촌마을, 수지 초리마을, 산동 부동마을), △주민역량 강화사업(송동 정포마을, △주민역량 강화 및 마을경관 사업(금지 서재마을)으로, 마을당 각 4백만원 지원한다.

생생마을만들기 플러스 사업은 전북자치도 공모사업으로 △마을 주민 평생교육 지원(주생 영촌마을, 아영 외지마을) △마을축제 운영 활성화 지원(덕과 솔바람권역마을) △산촌 마당캠프 활성화 지원(대강 월산마을) 사업별로 각 마을당 4백만원~1천2백만원을 지원한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봄철 산림 내 불법 행위 특별단속 실시

임실군이 봄철 산행 증가와 임산물채취 시기를 맞아 오는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 행위 집중 단속을 강력히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산물 예방과 산림훼손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관내 산림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현장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주요 대상은 △봄철 임산물채취 △산림 훼손 및 오염시킬 수 있는 불법 시설물 설치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임산객의 인화물질 소지 및 임야 인접 지역 소각 행위 등이다.

군은 특별기동단속반 3개반 12명을 편성,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 산림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을 강력히 실시할 방침이다.

심 민 군수는 "불법 행위 근절에 적극 동참해 국민 모두 산림 보호에 앞장서 주실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전홍영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엔 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달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